

결혼과 여성의 지위-사랑받는 아내상이 변한다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의 공존

언제부터인지 '사랑받는다'는 곧 반여성적인 언어의 대명사로 통용되고 있다. 앞서간 여성의식을 말하고자 하는 필자들은 곧잘 "사랑받는 여성에서 사랑하는 여성으로"라는 제목을 잠곤 한다. 페미니스트 칼럼에서 이 제목이 단골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은 수동성에 길들여진 여성상을 비판하는 한편 적극적인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한 시대를 풍미한 유행어 '사랑받는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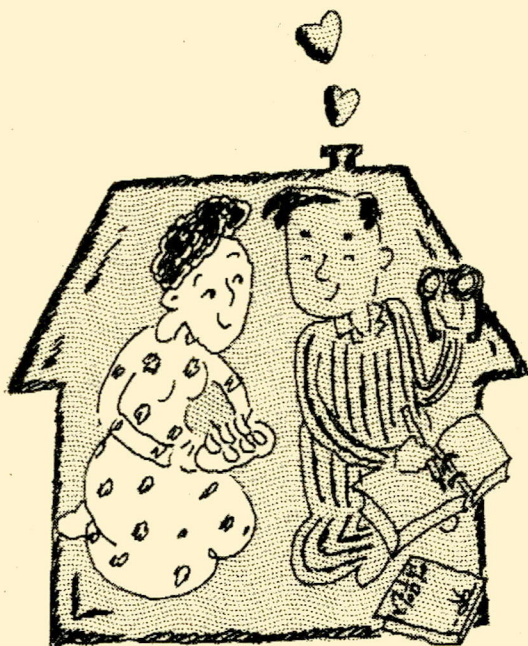
'사랑받는 아내'가 유행어로 등장한 것은 70년대 전반. 여성강의에 전문가로 자리잡아온 조동춘 씨가 사랑받는 아내, 교실을 시작하면서부터다. 조 씨는 마라벨 모건의 <토탈 우먼>이라는 책을 번역, 출판하려는데 미국에서 성적 매력을 겸비한 의미에서의 완전한 여성이라는 '토탈 우먼'에 적합한 말을 찾아보니 '사랑받는 여성'이 가장 가까운 말이었다고 전한다. 74년 당시 <사랑받는 여성>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온 마라벨 모건의 책은 장기 베스트셀러로 오르면서 '사랑받는다'는 수동형의 동사를 여성과 밀접하게 연결시키게 된다.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2년 후인 76년, 이미 여성 대상 명강으로 소문이 나 있던 조동춘 씨는 '사랑받는 아내 교실'을 운영하게 되었고, 그의 강의는 카세트 테이프와 책으로 풀려나가면서 대중적인 여성문화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한 여성지도 '성공하는 남편, 사랑받는 아내'라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에 이르는 시기까지를 일약 '사랑받는 아내의 시대'로 만들어 나가게 된다.

'사랑받는 아내'를 성공시킨 조동춘 씨는 시대적인 상황과 잘 맞아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당시는 경제개발계획을 두번째까지 끝내고 난 때로 우리 사회가 막 살만해지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남자들은 불철주야로 일에 매달려야 했고, 여자들은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생겼는데 정신적으로는 행복해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느 나라에서나 경제성장의 과도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봐요. 제가 사랑받는 아내 강의를 시작할 때 가장 유행했던 노래가 하수영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였어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젖은 손이 애처로워...'하는 노래 말이지요. 그 만큼 경제개발에 밀려 가정의 결속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



사랑받는 아내 I

서 여성들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시대 상황과 제 강의가 아주 잘 맞아들었던 것 같아요."

당시 조동춘 씨가 내린 '사랑받는 아내' 처방은 "스스로 노력해서 남편을 잘 관리하면서 사랑받고 살아가"는 것으로 결혼한 여성에게는 아주 실질적인 방법이었다. 그는 주로 성공학과 경영학, 인간관계, 처세, 화술 같은 분야의 전문서를 참고로 삼고 거기에 얻은 지식을 남녀관계와 결혼에 대입해서 강의안을 만들었다.

'사랑받는다'는 표현은 종종 놀림감이 되기도 하고 식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남편을 사랑하는가? 결국 내가 사랑받기 위함이 아닌가? 당신은 사랑받는 것보다 미움받기를 원하는가?"라고 반문하는 조동춘 씨의 주장에 반대할 생각을 가진 사람을 별로 없었다.

아직까지도 대중적인 여성문화에서 '사랑받는 아내'를 대치할 만큼 매력적인 단어는 찾아지지 않았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위력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도 "잠자리가 편안해야 사랑받는다"는 침대광고 속에서 이 단어는 굳건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받는 아내를 공격하는 논리들

20년 전 사랑받는 아내론이 풍미하던 시절과 지금의 여성문화는 그 다양성에서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20년 전의 사랑받는 아내론은 유일하게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의 삶에 대해 얘기하는 언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출세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것 이외의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 가정주부는 모든 여성의 가장 확실한 진로였고, 가정주부에게 남편의 사랑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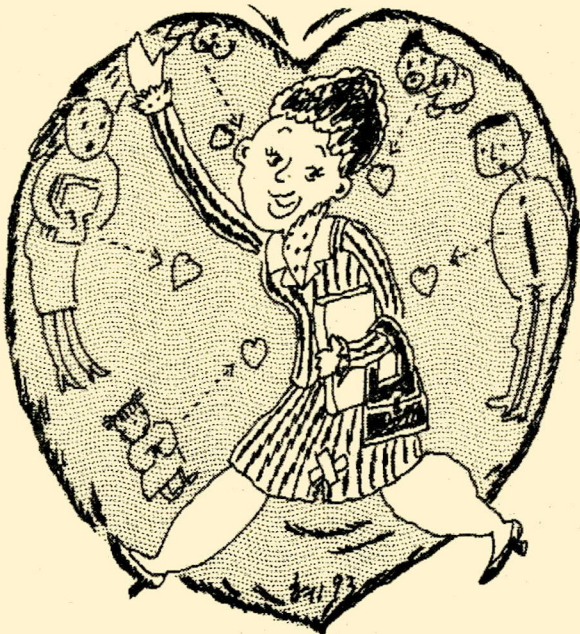
삶 전체의 풍요를 약속하는 물심양면의 보험과 같은 보상이었다. 그런데 남편을 일터에 빼앗겨버린 아내들은 마음속의 방황을 시작하고 있었고 이 방황하는 여성심리 속에 '사랑받는 아내'의 깃발을 꽂은 기수 조동춘 씨는 한 시대의 스타가 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이 사랑받는 아내를 주제로 한 여성담론이 여성의 신비를 조장하고 여성들에게 거짓의 행복을 믿게 했다는 비판도 많았다. 특히 여성운동쪽에서는 사랑받는 아내라면 아예 여성을 비하시키는 것으로 목상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한때 조동춘 씨는 모정당의 전국구의원 입당설이 있었을 때 여성단체로부터 반대 성명이 발표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사랑받는 아내가 얘기된 지 20년 후의 특징이라면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져서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사랑 '받는' 여성론을 믿고픈 여성은 사랑받는 아내로 살고, 사랑 '하는' 여성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옳다는 걸 뒷받침해주는 이론을 따라 살아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동안 여성운동은 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해왔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다. 그동안 여성운동에서는 이 사랑받는 아내론이 여성의 자리를 '한 남자의 아내'로 고정시켜 여성에게 독립적인 주체성을 갖지 못하게 하고, 부정적인 여성의 기질이라고 얘기돼 왔던 여성다움을 더욱 부추기고, '남자는 사회, 여성은 가정'이라는 이분법을 조장해왔다는 점 등을 들어서 '반 여성적'이라는 비판의 칼날을 갈아왔다.

아내의 역할을 바라보는 사랑받는 아내 진영과 여성운동 진영의 시각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똑같이 아내역할을



사랑받는 아내 II

충실히 해내는 것이라고 해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21세기판 사랑받는 아내

사랑받는 아내의 시각에서는 '남편을 잘 관리해 챙기고 사는 것', '원가계산 잘해보면 기존 단골 관리하는 편이 나은 것'으로 말해진다. 같은 현상을 두고도 여성운동에서는 '대리충족', '종속', '자아 상실' 같은 말로 표현돼 왔다. 사랑받는 아내들이 '이왕 할 것 적극적으로 잘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여성운동은 '안하고 사는 법, 안하고도 즐겁게 사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의 시각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페미니즘이 문화의 각 장르로 흡수되면서 여성운동의 시

잔혹한 종말로 이끌었다. '절반의 실패'를 선언하고 여성작가로 자리를 굳힌 중견 소설가 이정자는 20만부가 팔렸다는 <혼자 눈뜨는 아침>에서 사랑받는 아내라는 허상을 갈갈이 찢어내고 그의 아늑한 성이었던 중산층의 가정과 부부관계를 개구리가 해부되는 모습에 비유해낸다. 이들은 사랑받는 아내 앞에 '결혼의 스트레스'를 보고한다. 그리고 독자들은 이들의 보고서를 빅 히트 도서로 만들었다.

이런 시대흐름은 사랑받는 아내 내부에서도 일고 있다. 최근의 조동춘 씨 강의를 들어보면 사랑받는 아내도 21세기판으로 수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편에게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라 하고 나는 몰라라 하는 것은 과거의 여성상이다.

이제는 경제적인 면에서 남편이 반장이라며 아내는 부반장의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남편이 이사가거나(이혼), 나 혼자 살아야 할 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주 1회씩 좋아하는 일을 10년간만 계속하라. 나중에 돈이 필요해지면 직업으로 사용하고 돈이 필요없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라. 노후에도 혼자 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기 위해서라도 전문성을 준비하라.'

최근 <사랑받는 아내 프로그램>인 '현대여성의 가치관'에서 조동춘 씨는 이런 요지의 강의를 하고 있다. 조동춘 씨는 요즘 시대상을 반영해 미래학 계통의 책을 참고로 삼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여성학 쪽의 책은 '대안없이 책임전가하는 말장난' 같아서 별로 강의안으로 참고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그의 강의가 여성학의 맥락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점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또 한편 여성학자의 직함을 지키면서 대중 연사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숙희 씨는 최근 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소수의 주부 수강생을 대상으로 여성학 강의를 시작했다. 여성학자가 상업화의 무대 한 가운데로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만 해도 '반여성적'이라는 레텔과 동일시됐던 사랑받는 아내가 어느새 여성학의 흐름을 타기 시작하고 가장 반체제적인 학문이었던 여성학 전공자의 강의가 부가가치 높은 상품으로 포장되기 시작했다. <김효선 기자>

이식 줄기

토지사기소송 승소한 어느 여성의 호소

지난 14일 오후 1시30분 대법원 1부 2호 법정에서 진송자 씨(52. 광주시 북구 두암동 문화맨션 B동 501호)는 가슴을 졸이고 있었다.

시아버지(정귀대)가 남편(정봉기)에게 물려준 선산 3만3천평에 대해 갑작스레 날아든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장'을 받았다. 한집안간인 정순태 씨가 '진 씨의 땅은 조부가 정귀대 씨로부터 1925년 벼 20섬과 현금 7백원으로 샀는데 지금껏 소유권이 전등기를 안해주고 있다'는 요지로 소송을 걸었던 것.

남편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날벼락'을 당한 진 씨는 변호사 등을 진 전문토지사기꾼들이 친인척을 내세워 위증을 해가며 소송을 걸어온 데 아무런 대비책이 없었다. 그러나 원고측의 증언이 '위

증'으로 밝혀지고 광주지법은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원고측은 광주고법에 항소, 다시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항고, 끝까지 땅을 빼앗아보려는 음모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

이날 대법원은 '원고의 항고 기각' 판결을 내려 진 씨와 2남 2녀자녀들은 선산을 지킬 수 있었다. 이 일로 급성스트레스 암 선고를 받고 수술까지 받은 진 씨는 판결 후에도 한동안 뛰는 가슴을 억제하지 못하다 어렵게 말문을 꺼냈다.

"같은 집안끼리 잘 살라고 격려는 못해줄망정 남편없는 여자를 깔보고 서로 짜고 땅을 가져가려 했다는 사실에 세상이 무서울 따름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했는데... 너무나 기쁘요." 진 씨가 승소를 할 수 있었던 데는 같은 동네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진 씨와 이웃해 있는 땅(전남 화순군 북면 서유리 산 149번지) 1천6백20평을 빼앗긴 한홍례 씨(여성신문 보도)의 도움도 컸다. 진 씨의 땅을 빼앗으려던 원고측 변호사가 다름아닌 한 씨의 땅을 가져갔던 동일인이었다.

진 씨는 다른 것은 다 접어둔다 해도 위증에 동참했던 남편의 친구이자 원고의 사촌인 정훈태 씨(진도군 용동국 교장)에 대해서 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미 30만원의 위증 벌금형을 받았지만 "교육자가 땅사기에 가담하고도 버젓이 어린 새끼들을 가르키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광주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는 진 씨는 자기와 같은 '여성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했다.